# 새만금신공항 유치 · 노인소득보장 · 직불제 개선 · 미취업 청년 고용

〈김효성 후보〉 〈김춘진 후보〉 〈김종회 후보〉 〈강상구 후보〉

##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⑥김제부안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다野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김제시·부안군(이하 김제부안)' 선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새로 획정된 선거구로 제19대 총선에서는 김제시·완주군, 고창군·부안군이 선거구로 묶였었다.

김제·부안은 새누리당 김효성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 정의당 강상구 후보 등 4명의 총선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 지역도 '野 대 野'의 대세 속에 새로이 획정된 선거구에 따라 '소지역주의'의 심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된 김제·부안 여론조사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일 전북매일신문이 발표한 조사(모노리서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0%p, 응답률 6.2%)는 김효성 후보 4.0%, 김춘진 후보 37.5%, 김종회 후보 41.9%, 강상구 후보 4.8%, 무응답 11.8%로 김종회 후보가 김춘진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두 야당의 정당지지도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2.7%와 41.8%로 후보별 지지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2일 등록된 뉴스1 전북취재본부의 여론조사(여민리서치 컨설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0%p, 응답률 6%)에 따르면 각 후보별 지지도는 김효성 후보 6.5%, 김춘진 후보 41.4%, 김종회 후보 41.8%, 강상구 후보 4.8%, 무응답 5.4%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여 판세가 안갯 속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이어 지난달 31일 등록된 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도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4%p, 응답률 22.3%)에 따르면 각 후보별 지지도는 김효성 후보 4.3%, 김춘진 후보 34.6%, 김종회 후보 35.7%, 강상구 후보 6.0%, 무응답 19.4%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조사는 당선 가능성에 대해 김춘진 후보 33.6%, 김종회 후보 26.1%를 나타내 후보별 지지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두 후보간 '금배지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다.

여당 후보로서 비교적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효성 후보는 김제와 부안에 각각 9개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김제에 대해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신공항 유치 등 지역현안인 공약 외에 새만금내부개발사업과 연계해 심포지구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부안 지역은 새만금신항 철도와 부안간 증설 게이트웨이로 부안 관광객 유치 및 물류수송망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는 일명 '어르신 공약'으로 불리는 노인소득보장 등을 선두로 내세운 5대 공통 공약과 김제·부안 각 지역별 공약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김 후보는 김제와 부안의 지역현안에 맞춰 새만금 등의 공약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에는 김제 지평선축제를 세계적인 농경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부안지역에 대해서도 민감한 현안인 새만금에 관련된 공약을 포함해 세계잼버리 유치, 서해안철도망 연결, 부안~흥덕 23번 국도 확포장 사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는 5대 핵심공약으로 새만금 SOC 조기 구축 등 새만금 공약 외에 김제·부안에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설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축산민이 많은 지역상 특징을 고려해 직불제 개선으로 농어민과 축산민이 공무원처럼 대우 받고 소득을 증대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25%삭감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민생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는 소득직불제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고, 매년 5% 이상씩 미취업 청년을 신규 고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 내실화와 누리과정 100% 국고지원등을 이루고 깨끗한 도시 김제·부안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새마을 운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통해 농어촌 오지의 교통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새누리 **김효성 후보**

국가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심포지구 센트럴 파크 구축
부안지역 물류수송망 확보

더민주 **김춘진 후보**

김제 지평선, 세계적 축제로
부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6차산업화 농어가 소득 증대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

새만금 SOC 조기 구축
지역 체류형 관광 설계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

정의당 **강상구 후보**

소득직불제로 농가수익 증대
누리과정 100% 국고 지원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

## 김홍걸 등 더민주 중앙인사들 오늘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중앙인사들이 6일 전북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중앙당 국민통합위원장과 '썰전'의 이철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전주, 익산, 정읍고창, 김제부안 선거구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김홍걸 위원장은 오전 10시 전주 을의 최형재 후보와 함께 전주 효자동 양지노인복지관과 전북노인복지관을 방문한다.

이어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릴 전북지역 후보자 합동유세에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합동유세를 마치고 안골노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후보자들과 함께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김제로 넘어가 간이배차장로타리와 전통시장에서 김춘진 후보 지원유세를 갖는데 이어 정읍 명동의류타운 상가와 수성동 주공1단지 아파트 일원에서 하정열 후보 지원유세를 펼친다.

이철희 상황실장은 오후3시 30분부터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집중유세와 함께 상가를 돌며 대학생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4월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최형재 후보와 함께 전주대학교에서 토크유세를 이어간다.

이 실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 삼성생명 앞 중앙시거리에서 익산갑 이춘석 후보의 지원유세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부산 사하구 동아대 하단캠퍼스 앞에서 열린 최인호 후보(사하갑)의 거리유세에 참가,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무성 "운동권 정당 승리 막아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운동권 정당'인 야당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족욕장에서 열린 진동규(유성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운동권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만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찍으면 20대 국회에 운동권이 대거 들어와서 19대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대전시민이 이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성주 기자

## 김종인, 충청서 '경제심판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4·13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방문, 정부여당의 경제실책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데에 열을 올렸다.

김 대표는 선거를 8일 앞둔 이날 충청남도 아산과 천안 등을 잇따라 찾으며 중원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전과 충북 괴산을 잇따라 찾으며 충청권에 공을 들여왔다.

충청권이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가 됐던데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가운데 27석이나 걸린 '격전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헬조선, 흙수저와 금수저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다.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영원히 금수저를 갖지 못하는 사회로 고착화 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아닌 새누리당에 표를 준다면 이 같은 경제상태가 계속 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어 "해외에 나가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세계 경제의 동향을 보면서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인식 조차 못 하는 게 현재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며 "더민주는 경제정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경제정당, 서민정당, 수권정당의 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고, 이를 위한 전문가도 많이 모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며 "이 권리를 행사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성주 기자

## 전북총학생회협 "대학생들 투표율 올리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총학생회협의회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대학생들의 투표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총학생회협의회는 전북대와 군산대·원광대·전주대 등 전북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하고 있는 연합 협의체이다.

이날 이들은 "도내 대학생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2030 청년세대가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대학생들도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4가지에 절대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면, 투표를 통해 청년 실업률 등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져 보고자 한다"고 했다.

총학생회협의회는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소중한 1표 행사 약속 서명운동과 투표 인증샷 등을 진행하고, 각 대학별로 부스를 마련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안철수 "일반 시민들도 양당 철밥통 문제의식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5일 "일반 시민들도 양당 철밥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정희영 후보(의정부 을)에 대한 지원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부터 당 분위기가 상승세인데 수도권까지 확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 일으켜 다시 대한민국의 위기를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거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의석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른바 '엄살전략'에 대해서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창당 두 달 밖에 안 된 정당인 우리는 미래에 대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당 철밥통은 국민의당 얘기만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이성주 기자

## "큰 소나무로 무럭무럭 자라 정권교체의 희망이 될 것"

### 더민주 전북 후보 5명 금송 심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은 5일 오전 전주 덕진 연화마을 입구 길공원에서 '총선승리·정권교체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춘진(김제부안),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 병), 이춘석(익산 갑), 하정열(정읍고창) 후보는 "막말, 배신, 폭력, 분열의 과거정치 심판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정권교체 전북시대를 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후보들은 또한, "김광수, 장세환, 정동영, 김관영, 이한수, 조배숙, 유성엽, 임정엽 등 국민의 당 후보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지원으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시장·군수까지 지낸 분들"이라며 "단물을 다 빼먹고 이제와서 친정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있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국민의 당 후보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우리가 열망하던 LH전북이전 무산은 국민의 당 후보 정동영, 장세환, 조배숙 국회의원이었고, 김광수가 도의원으로 전북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을때 빼앗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이춘석, 김윤덕, 김성주 후보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해 전북정치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4.13 총선 승리와 2017 정권교체를 위한 도민들의 희망을 담아 금송 한그루를 심었다. /특별취재반